

젠더노동네트워크

청소년의 일 경험과 성차별 집담회

- 일시 : 2019년 8월 13일 (화) 14:00~16:00
- 장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중강의실(221호)

청소년의 일 경험과 성차별 집담회

[프 로 그 램]

- 일 시 : 2019년 8월 13일 (화) 14:00~16:00
- 장 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중강의실(221호)

사회: 김경희 (젠더노동네트워크 단장
· 수원 여성노동자회 대표)

시 간(분)	내 용	발표자
14:00 ~14:10	10 개회사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이야기 나눔	
14:10 ~15:50	40 1) 여성 청소년이 알바를 하면서 2) 여성 청소년의 일 경험과 성차별 3) 여성+청소년+아르바이트의 문제	김서희 김가은 유수정
	토 론	
14:50 ~15:30	40 1) 청소년 노동 정책에서의 성평등 실현 방안 2) 성인지적 관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추진해야 3) 성평등 노동교육 어떻게 하나? 4)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지원 사업 5) 경기도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도의 역할	김현삼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희 (수원여성노동자회 회장) 유소정 (경기도 평생교육과 미래교육팀장) 고현숙 (경기도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장)
15:30 ~16:00	30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전체 참여자
16:00	폐회	

[목 차]

이야기 나눔

- | | |
|----------------------|---|
| 1. 여성 청소년이 알바를 하면서 | 1 |
| - 김서희 | |
| 2. 여성 청소년의 일 경험과 성차별 | 4 |
| - 김가은 | |
| 3. 여성+청소년+아르바이트의 문제 | 5 |
| - 유수정 | |

토 론

- | | |
|------------------------------|----|
| 1. 청소년 노동 정책에서의 성평등 실현 방안 | 9 |
| - 김현삼 (경기도의원·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 |
| 2. 성인지적 관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추진해야 | 12 |
| -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3. 성평등 노동교육 어떻게 하나? | 16 |
| - 김경희(수원여성노동자회 회장) | |
| 4.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지원 사업 | 18 |
| - 유소정 (경기도 평생교육과 미래교육팀장) | |
| 5. 경기도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도의 역할 | 21 |
| - 고현숙 (경기도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장) | |

발표 1

여성 청소년이 알바를 하면서

김서희

우선 나의 집은 한부모 가정이고 집안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용돈을 받기 어려운 관계로 알바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고깃집 알바를 하던 친구가 끝나는 시간이 너무 늦어 “여자애가 무슨 그 시간에 돌아다니냐”며 안된다고 반대하는 아빠의 강압에 의해 그만 두게 됐고, 내가 이어서 하게 됐다. 그곳에서 나는 홀서빙 알바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월, 화, 수요일 주 3일을 일하게 되었다. 고깃집은 숯불을 직접 다루며 무한리필 메뉴가 있었기에 불을 더욱더 많이 다루었다. 학교를 마치고 고깃집을 가는 일상이 익숙해졌을 즈음, 5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 손님이 “남자 직원은 어디 있고 여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당시 나는 직원이었고 손님에게 항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알바를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며 소극적으로 말씀드렸다. 하지만 그 손님이 식사를 다 하신 후 던진 사장님의 말씀이 더 불쾌했다.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손님한테 네가 남자랑 힘이 똑같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안 했어(웃음)” 내가 들었던 생각은 ‘여자는 위험요소가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또 남자는 위험한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건 편견인데’ 였다.

고깃집 여자 사장님은 내가 편해지셨는지 어느 사이부터는 내 체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알바를 하다 보니 살이 빠져 더 예뻐진 것 같다”, 어쩌다 살짝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가니 “그런 옷을 입으면 좀 나이가 있는 아저씨 손님들이 성적인 발언을 한다”며 주의를 주시기도 했다. 내가 살집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게 설령 칭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또 타이트한 옷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는지 역시 이해가 되지 않고 당황스러웠다.

한편 주방 이모 두 분이 계셨는데 내가 화장을 안 하고 가면 꼭 사장님과 함께 “아파 보인다” 또는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거나, 대놓고 나에게 “루즈

좀 발라라”, “보기 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화장은 자신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에서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고 다니면 화장 좀 하고 다니라며 나무라고 화장이 예의고 배려라고 말하는 것이 떠올랐다. 당시 나는 그냥 화장하는 것이 귀찮다며 얼버무렸지만 기분은 상당히 나빴다.

단기로 용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만 하는 액세서리 프리마켓 알바도 하게 됐다. 이곳에서는 분홍색으로 된 머리띠나 레이스로 만든 뽀와 같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여자아이들이 하는 액세서리를 팔았다. 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여자색과 남자색을 구분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어릴 때부터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부모들에게 키워져 커서 나는 남자니까 혹은 나는 여자니까~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내가 이 고깃집에서 일하기 전에는 음식점과 같은 곳에서 하루 단기 알바를 네 차례 정도 했다. 내가 일한 곳에서는 여자는 모두 치마를 입었어야 했다. 나는 그 곳에서 주는 옷에 몸에 라인이 너무 들어가 있어 입기 싫었지만 하는 수없이 입었다. 또 다른 곳은 아르바이트생들의 대부분이 청소년이었어서 정직원이 아르바이트생들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욕하기도 했고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8시간을 일하면서 물 한 모금도 주지 않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용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참고 다른 호텔에 알바를 하러 갔다. 그곳에서 주는 옷 또한 몸의 라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옷이었고 입고 나가니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직원이 뒤에 끈이 안 묶였다고 묶어 주겠다고 했다. 나는 이게 편하다고 거절했지만 그 직원은 묶어주었고 그다음 나의 가슴을 보더니 “오~ 푸는 게 낫겠는데? 너무 크다(웃음)”라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나는 이런 식의 성희롱을 처음 당해 당황스러웠고 그 남자가 너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해서 더욱더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알바 말고도 사회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여자가~’ 또는 ‘남자가~’라는 발언이 성차별적인 발언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 하다. 또한 성차별에 관한 교육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평등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또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충 해주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단기 알바에서는 오래 보지 않을 사람이어서인지, 청소년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청소년 노동자로서 존중 받지 못하는 느낌이 매우 많이 들었다.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노동에 대한 강의는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내가 일을 하다가 성차별 혹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몰랐다. 따라서 성차별,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교육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미래에 우리의 사회에서는 성차별, 성희롱이 없을 수 있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교육하고 부모들도 그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게 된다면 좋겠다.

여성 청소년의 일 경험과 성차별

김가은

여성+청소년+아르바이트의 문제

유수정

우선 청소년기 때에 했던 아르바이트를 나열해보자면 편의점, 식당 홀 정리 및 판 닦기, 연회장 서빙, 전단지 돌리기, 패스트푸드 버거집 정도가 있습니다. 용돈을 받기 어려운 가정 상황을 알고서 17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고 옷을 사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고, 크면서 원하는 게 더 다양해지고 통신비와 교통비를 직접 부담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성이라고, 청소년이라고 해봤자 일터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17살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던 때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편의점에서 주말 이틀 동안 오전 시간에 일을 하게 되었고, 혼자 편의점을 지키며 카운터 업무와 재고 및 매대 정리 업무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지 두달 정도 지났을 때 꾸준히 오던 남자 손님이 본인을 알아보겠느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잠시 시간이 되느냐며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서 안 된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잠깐 안아보고 싶다고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달라고 했습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을 했고 그 사람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약 30분 뒤에 다시 찾아와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고 돈을 줄 테니 시간을 달라고 했고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돌아갔지만 이후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편의점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저는 정말 무서웠고 암전히 그 사람을 되돌려 보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사장님께

게 이야기를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혼자 편의점에서 일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그 날 이후로 또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며칠 지나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명함을 3~4개 받아 봤고, 연회장에서 일을 하면서 관리자가 제 손으로 손가락 욕을 만들어서 다른 관리자에게 욕을 하라 했었고, 버거집에서 일을 하면서 웃지 않았다는 이유로 컴플레인이 심하게 들어와서 울면서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다 적을 수 없을 정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나간 나쁜 에피소드가 될 뿐이었고 실질적으로 고소를 할 수도 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위로는 받을 수 있었지만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았기에 저는 굳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는 용돈벌이의 가벼운 것으로 보는 어른이 많고 너무나 쉽게 일을 그만 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더라도 성차별적 상황은 늘 일어납니다. 충분히 들 수 있는 것을 남성이 굳이 대신 들거나, 화장을 하라던가, 목소리 톤을 높이고 웃을 것, 연회장 같은 경우는 음료나 차를 따르는 것,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일상적인 발언이나 행동들이 성차별적이거나 성희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일이 하나가 있다면 그 뒤에 숨은 작은 일이 50가지 100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일상적이라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인지 못하고 상황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성희롱이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버거집에서 일을 할 때에는 나이가 비슷한 여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일을 했었는데 허리를 찌르고 간지럽히는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불쾌했지만 모두가 웃고 장난으로 넘기는 분위기에 정색하며 불편하다고 말하지 못했고, 성희롱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노동인권교육, 성인지 교육이 중요합니다. 같은 성별이 엉덩이를 두드리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외모를 지적하고 평가하지 않는다, 친구

사이의 농담과 직장 동료 사이의 농담을 구분 한다 등 이런 사소하고 당연한 것들 몇 가지만 알아도 일상적인 차별과 성희롱 성추행이 절반 이상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학교의 역할과 직장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로, 사장님으로, 주변의 어른으로 존재한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편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어른은 주변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조차 어렵고,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기는커녕 2차 가해를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장은 관리 감독을 해야 하고 손님과 문제가 생겼을 시에 노동자의 편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의 문제 상황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장님의 노동인권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필수 이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정기적으로 성인지 교육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터에서 학생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직접적인 대응은 못하더라도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청소년유니온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노동조합이다 보니 조금 앞서서 노동시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시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단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조금이라도 노동법과 대처법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터에서의 당당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휴수당을 준다며 생색내는 매니저한테 당연한 거라고 말할 수 있었고, 화장을 하지 않고 출근해서 컴플레인 들어와도 나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첫 일 경험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종이에 살짝 베이기만 해도 사람은 움츠러들고 조심하게 되는데 첫 일터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면 트라우마

가 되어 이후에 직장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일터는 더 보호 받아야하고 더 안전해야만 합니다.

여성청소년아르바이트라고 특별한 상황에 놓이는 건 아니에요. 여성, 청소년, 비정규직이라는 불리한 조건들이 더해지고 또 더해져서 복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여성이라서 청소년이라서 차별받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일상이라 조금 무더졌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트라우마가 되살아나요.

토론 1

청소년 노동 정책에서의 성평등 실현 방안

김현삼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교육위원회)

<성평등 담론의 전개과정을 살펴 보면>

- 1975년 멕시코시티에서 ‘세계여성의 날’ 선포
-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북경행동강령’ 선포-성평등 주류화
- 1996년 이후 국내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여성부 신설과 호주제 폐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여성정책과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상당부분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임. 이에 국제사회와 국내에서는,

- 2015년 9월 UN-SDGs 선포
- 2018년 12월 K-SDGs 선포
- 2019년 1월 G-SDGs 선포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란?

인류가 직면한 경제, 사회, 환경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각국과 지방정부가 사람, 번영, 평화,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미래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추구할 것을 정의함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는 전체 17개의 목표 중에서 ‘목표5’로 <성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정하였고, 이의 구체적인 이행 수단으로

- 1)여성의 사회참여 비율 제고
- 2)물리적 힘이 약한 상대에 대한 폭력(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국제사회와 정부 및 경기도의 노력으로 볼 때, 성평등은 인류의 보편적인 목표이자 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 수단임이 증명된 것이라 하겠다.

<최근 성평등 담론을 둘러싼 갈등>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 경기도내 산하 공공기관과 일반 사업장 내에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조항인데, 이에 일부 보수 기독교 내에서 해당 의원을 상대로 문자테러 및 집회 등을 통해 성평등 조례명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 이에 후속으로 준비했던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을 위한 조례’는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사회의 성평등에 관한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며 향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음.

<경기도의 노동정책 전개 과정을 살펴 보면>

-경기도 근로기본조례 제정(2016년)

-경기도 근로기본종합계획수립(2018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립(2019년 3월)

-경기도 노동국 신설(2019년 6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박람회 개최 계획(2019년 8월) 등

경기도 행정영역에서 노동정책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

<청소년 노동 정책에서의 성평등 실현 방안>

-최근 경기도 특성화 고등학교 노동권익증진방안 토론회 무산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 학교의 요구와 실제 청소년 노동 현장 간의 괴리 현상 발생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일상적으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일선 학교, 기업 등 이해관계자간의 올바른 청소년 노동정책 실현을 위한 협의체(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노동 정책의 뿌리가 깊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내부의 성평등’ 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경기도가 향후 노동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청소년 및 청소년 내부의 성평

- 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식적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제도적 방안 마련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 청소년 단위의 성평등 인식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함

<붙임자료>

여성가족국 예산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본예산
계	2,693,617백만원
여성정책과	29,597
가족다문화과	59,558
보육정책과	1,983,859
아동돌봄과	584,251
여성비전센터	36,352

□ 양성평등 관련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계		362,100천원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주간사업 지원	45,000
	성인지력 향상	207,100
	경기도성평등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34,000
	성평등 캠페인 추진	5,000
	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 우수사례 발표대회	6,100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경기젠더스쿨 운영	30,000
	성인지 교육 및 성주류화 정책 추진	132,000
	젠더거버넌스 사업운영	10,000
여성비전센터	경기도 동행 프로젝트	100,000

□ 성인지예산 현황(19년 본예산 기준)

- 도 전체 : 200개 사업, 3,403,989백만원
(※ 공약집 성인지 예산규모 200개사업, 27,000,000백만원)
- 여성가족국 : 50개 사업, 1,513,177백만원

성인지적 관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추진해야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남성보다 높은 여성 청소년 아르바이트 비율, 시간당 임금은 남성보다 낮아¹⁾

- 2018년 현재 중고등학생의 9.0%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성별로는 여성이 9.4%로 남성 8.7%보다 다소 높았음.
- 업종별로는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45.9%)이 과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뷔페, 웨딩홀, 연회장(14.1%), 전단지 배포(7.8%), 패스트푸드점(6.5%), 편의점(6.2%), 공장(0.7%) 순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도소매, 음식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았음.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의 비율이 50.1%로 남성에 비해 현저히 높았음.
- 일주일 평균 노동일수는 2.7일로 조사되었고, 여성 2.5일, 남성 2.8일로 남성이 다소 길었음. 일일 노동시간은 평균 6.2시간으로 여성 6.0시간, 남성 6.4시간이었음.
- 평균 시간당 임금은 7,785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과 유사한 수준이었음. 성별로는 여성이 7,579원으로 남성 7,994원에 비해 임금이 다소 낮았음.

<표 1> 아르바이트 업종¹⁾

(단위 : %)

	편의점	대형마트 /쇼핑몰 /아울렛 /백화점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	뷔페, 웨딩홀, 연회장	패스트 푸드점	전단지 배포	공장
2016	5.5	3.1	41.6	17.9	6.1	6.9	2.4
2018	6.2	2.2	45.9	14.1	6.5	7.8	0.7
남 자	6.8	2.9	41.5	14.4	5.8	8.6	0.9
여 자	5.6	1.5	50.1	13.7	7.2	6.8	0.6
중학생	3.7	2.6	39.5	3.9	1.4	29.9	0.0
고등학생	6.4	2.2	46.5	15.1	7.0	5.5	0.8

주 : 1) 현재 또는 올해(2018)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올해(2018) 가장 장기간 일한 아르바이트 업종
 -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 출처 : 통계청·여성가족부(2019.5.1.), “2019 청소년 통계”

1)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2018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을 분석한 김송이 외(2014)에 따르면 성인노동시장과 비슷하게 직종, 근로실태, 동기, 아르바이트 만족도 등에서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함. 또한 여성청소년은 임금수준, 근로계약서 작성비율, 사회보험가입률 등에서 남성 청소년에 비해 더욱 취약했다고 밝힘²⁾.

□ 청소년 고용업소 44.8%가 노동법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³⁾

-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일반음식점, 피씨(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을 478개소를 점검한 결과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는 232개소로 48.5%를 차지했음.
- 청소년 고용업소 232개소 중 관련 노동법규를 위반한 업소는 104개소로 44.8%로 나타남. 업종별로는 슈퍼·편의점이 79개소 중 41개소(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은 일반음식점 27개소(26.0%), 커피전문점(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동법규 위반사례(211건)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110건(52.1%)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최저임금 미고지 38건(18%), 성희롱 예방교육 미 실시 22건(1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37개소의 청소년고용업소 중 16개소가 위반사례가 있었음.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연장야간수당미지급 5건, 임금관련 3건으로 나타남.

<표 2> 2018년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점검 결과

	청년 고용 업소 수	위반 업소 수	노동관계법 위반 내역 및 건수										
			계 (건수)	근로계약 미작성 (17조)	최저임금 미고지 (11조)	연소자 증명 미비치 (66조)	야간·휴일 근로제한 (70조)	휴게시간 미부여 (54,55조)	임금 미지급 (43조)	연장·야간 수당미지급 (56조)	최저임금 미지급 (6조)	금품 청산 (36조)	성희롱 예방교육 미 실시
총계	232	104	211	110 (52.1)	38 (18.0)	11 (5.2)	9 (4.3)	8 (3.8)	6 (2.8)	5 (2.4)	1 (0.5)	1 (0.5)	22 (10.4)
경기	37	16	32	24	1					5	1	1	

출처 : 여성가족부(2018.3.8.), “18년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2) 김송이(2014),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및 정책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 여성가족부(2018.3.8.), “18년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 청소년 중에서도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고, 직접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감정노동, 성희롱 등에 빈번하게 노출됨에도 사전예방 및 문제해결에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임.

□ 2016년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 경기도는 2016년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음. 동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임.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동 조례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 설치,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센터의 사업으로는 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4)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6)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사업 7)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이 포함됨.
- 이에 따라 향후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해야 할 것임.

□ 성 인지적 관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추진해야

-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방법에 대해 주로 또래 집단에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정형옥 외, 2018). 그러나 또래 집단에서 공유되는 노동관련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음. 제대로 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버전의 교안이 개발되어 있음. 각각의 교안들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함.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단지 노동법 지식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향후 살아가면서 경험할 노동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별분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할 것임. 이는 노동문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면서, 청소년들이 향후 자신의 삶을 기획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서는 여성 청소년들이 많이 경험하는 성희롱, 감정노동 등의 문제와 관련한 법제도, 구제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것임.

성평등 노동교육 어떻게 하나?

김경희(수원여성노동자회 회장)

□ 성평등노동교육의 필요성

- 학교,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은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인지교육’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도 함.
- 학교에서는 교육청이나 도의 지원으로 ‘노동인권 교육’이 진행됨.
(경기도의 경우 작년까지는 교육청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나 2019년에 경기도 평생교육과 예산으로 되어 경기도평생교육원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성평등 노동교육’은 용어조차도 낯설고 어느 기관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성평등 노동교육’은 노동인권교육, 성인지 교육과 더불어 현장에서 꼭 이루어져야만 교육임.
 - * 여성노동자회에서는 지자체에 성평등노동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성평등노동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함.

□ 수원여성노동자회 성평등 노동교육 시행 과정

- 수원여성노동자회는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결합하여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해옴.
- 그 간 노크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특성화고 전학년 학생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어 학년별 교안이 작성됨. (각 학년별 2시간 수업)
 - 전반적으로 성평등 관점이 들어가 있지 않아 수원여노에서는 한 학년 1시간 수업을 성평등노동 내용으로 배치.
 - 또한 각 학년별로 들어가는 내용에 성평등 관점이 들어가도록 계속 교안 수정 보완 중

- 지난 해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성평등 노동 열린강좌’와 ‘찾아가는 성평등 노동 교육 진행’
 - 찾아가는 성평등노동교육은 일부 자활센터나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진행
- 또한 금년에는 지자체 성평등기금 보조사업을 ‘성평등노동 상상하고 실천하고 변화하자’ 라는 사업명으로 제안하여 ‘페미노동아카데미(성평등열린강좌)’와 ‘찾아가는 성평등노동교육’ 진행함.

□ 성평등노동교육 내용

- 일상에서의 성차별 인식
- 일터에서의 성차별
 - 채용성차별,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 꾸밈노동, 결혼퇴사 등
 - 가정내 성차별과 이어지는 일터에서의 성차별 (가사노동 분담과 육아휴직 실태)
 - 사회적 인식과 일터에서의 성차별
(저평가되는 여성노동 : 여성노동은 보충노동(?), 돌봄노동의 가치)
- 직장내 성희롱
 - 미투와 여성의 노동권
 -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
 - 직장내 성희롱 사례
 - 성희롱과 조직문화
 -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하여
-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하여
 - * 찾아가는 성평등노동교육도 대상에 따라 주요 내용을 선택하여 진행

□ 성평등노동교육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 성평등노동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지자체 교육시스템에 성평등노동 교육 제안
- 공공기관부터 시행 구조
- 학교 교육 내용에 포함되도록 함
- 점차 민간 기업으로 성평등노동교육 확산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지원 사업

유소정 (경기도 평생교육과 미래교육팀장)

◆ 일하는 청소년은 지속 증가하나, 청소년의 노동인권 학습경험 부족

* 청소년 고용률 ('11) 23.1% → ('17) 27.2% / 학습경험 2.4% ('18년 여가부 통계)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체계적 기반 구축 및 교육 확대

□ 추진경과

구분	'18년	'19년	'20년 (계획)
예 산	5천만원	10억원	12억원
방 향	도 입	기반조성	저변확대
추진성과	▷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알바요) 제작보급(2만부, 467개소)	▷ 노동인권교육 강사파견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 강사용 표준교안 제작 ▷ 청소년 노동인권/진로 박람회	▷ 노동인권 강사양성-파견 플랫폼 체계구축 ▷ 노동인권 교재-교안-매뉴얼 통합개발 (콘텐츠 표준화)

□ '19년 사업현황

- 사업예산 : 10억원
- 교육대상 : 도내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 등 4만여명
- 지원내용 : 강사파견 및 강사비 지원, 강사 역량강화, 표준교안 제작 등

사업명	예산	사업개요	세부내용
계	1,000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지원	568	▷ 중·고등학생 대상 ▷ 노동인권 교육강사가 찾아가는 교육 (2,200회) ※ 교육청 협조	▷ 전문강사 중·고교 파견 교육중(3월~현재) - 144개 학교·시설, 1,076회, 32,603명 교육 - 강사 811명 파견(실인원) ▷ 표준교안 개발 (8~10월)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박람회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9. 8. 21 ▷ 참석 : 도지사, 교육감, 학생 2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문화 확산 선포식 ▷ 노동인권 교육-상담, 진로탐색 역량강화 일자리/알바 정보체험. 특별공연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알바요) 홍보물 제작 보급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바요 책자, QR코드 스티커·포스터 61,700부 ▷ 동영상 홍보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등 3,600여소 배포완료 ※ 소상공인업소 부착 ▷ 동영상 홍보물 제작 진행중(11월 완료)
노동인권 표준교안 개발 및 강사연수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용 표준교안(매뉴얼) ▷ 학생용 교재(핸드북) ▷ 강사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 제도, 사례 ▷ 효과적인 강의기법, 학습자 특성이해 ▷ 강사 표준교안 연수 (10~11월중, 2회)

첨 부

'19년 추진사업 참고자료

□ 알바요 (알기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 요약서)



< QR코드 스티커>
(50×50mm)



< QR코드 스티커 >
(140×70mm)



< 포스터 (A2) >

□ 2019년 청소년 노동인권 박람회

- ▶ 슬 로 건 : “나도 우리집 귀한 자식,
청소년의 노동권리堂堂하게 누리자!”
- ▶ 목 적
 - 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문화 확산 및 사회적 인식제고
 - 참여·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한 진로정보 공유
- ▶ 참 석 :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 도내 청소년, 중고생, 교사, 유관기관, 기업체 등 2천여명
- ▶ 주요내용 : 개막, 선포식, 노동인권 상담, 일자리/알바 체험



□ 청소년 노동인권 표준교안 제작

- ▶ 목 적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 및 교수기법 발굴 및
교육 핵심내용을 담은 학생용 교재 마련
- ▶ 주요내용 : 강사용 표준교안 및 학생용 교재(핸드북) 개발

-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핵심내용 정리
 -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청소년이 알아야할 노동법
 - 청소년 노동 현장 사례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법·제도 사항
- ▷ 청소년 노동인권 강의기법 연구
 - 강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할 교수-학습 원리원칙 정립
 -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대학생 등 학습자 특성 이해 및 대상별 강의기법
 - 학습자 참여형 주제 및 강의기법, 정치적 중립성 인식 등 마인드 함양 내용 등

토론 5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도의 역할

고현숙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장)

□ 들어가는 말

- 여성 청소년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전문 분야의 다양한 입장에서 전달해 주셨기에 도 전반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 성평등 문화 조성의 필요성

- (젠더 이슈와 갈등) 어느 설문조사에서 보면 우리 한국사회에서 겪고 있는 갈등, 특히 19~29세 사이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요 사회갈등 요인으로 젠더 갈등을 꼽고 있음. 특히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런 상반된 태도와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큰 숙제임.
- (성평등 문화 조성 필요성)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사회 내부적으로 미투운동, 불법 영상배포 등 많은 젠더이슈와 사회적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음. 안전한 사회구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은 성평등 문화 정착에 있음.
-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도의 역할) 도에서는 성주류화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상에서는 반감을 형성하지 않고 공감을 통해 성평등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음. 현 시점의 갈등과 반감을 서로의 공감으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도 성평등 정책 소개

- 간략하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주류화 정책 추진) 정책 주요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확대 및 정책개선 실효성 확보
 - 모든 공약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자체 특정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 전국 최초 전 공공기관 대상 성별영향평가 추진
 - 주요 정책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및 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우수사례발표대회
 - 제도 운영 및 개선 등 심의 조정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운영
- (성인지 교육 확대) 공무원 공공기관 교육 확대 및 도민 성인지 교육 추진
 - 도 과장급 간부공무원, 도의원 성인지 정책 교육과정 운영
 - 도민대상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경기젠더스쿨 운영
- (양성평등 실천 거버넌스 운영) 시민사회가 양성평등정책 추진 과정의 주체로 참여·협력하는 체계 마련
 - 도민정책 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성인지 모니터링 등 추진
 - * 6개 분야 : 성주류화정책, 여성친화도시, 청년, 문화, 인권, 노동
 - ☞ 연간 활동분야(주제)는 네트워크별 회의를 통해 자율적 선정
 - 지역성평등정책 확산을 위한 시·군 민관 협치 기반 조성 지원
 - 일상 속 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콘텐츠 제작 및 캠페인
- (도 양성평등지원센터 지정) 지역 성평등 교육 문화 사업 지원
 - 주민, 학교, 공공기관 종사자 등 주민주도형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 (성평등 ombudsman 운영)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대한 포괄적 피해신고 접수·조사 및 구제를 담당하는 독립적 기구 운영
- (성평등 캠페인 추진) 성평등 캠페인 영상 제작 및 배포
 - 도·시군 공무원, 도 공공기관 재직자, 도민 대상 성평등 실천 에티켓, 일상 속 성차별적 언어표현 등
-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각종 정책 시행
 - 여성고용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재직근로자 가사서비스 지원

- 도 정책사업(돌봄, 양육, 가사 등) 서비스 온라인 예약 신청, 수요자 맞춤형 검색, 온라인 소통상담 등 토탈 서비스 제공 등
- 지역 자원과 연계한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작은 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을 추진

□ 마무리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도 정책을 생활 구석구석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노동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 여성 등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실질적 생활 속 성평등한 문화를 정착을 위한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